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1주 -

조용한 기도 (Silent Prayer) 시편 37:3-6 다함께

찬 송 (Opening Hymn) 28장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31번 다함께

공동기도 (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구원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돈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참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고린도전서 10:23-33 인도자

말씀증언 (Sermon) 이송원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봉헌 (offering) 3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 (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 offering) 504장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전화나 카톡을 통해 안부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사택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범식성도님이 총괄책임자로, 도기준집사님께서 도우미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나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도제목〉

- 교회들이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도록
-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펜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말씀묵상〉 고린도전서 10:23-33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1.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묻고 생각해보아야 할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합니까?
2.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또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도외시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